

光日春秋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전환기에 놓인 한국의 지방자치

지 못함과 더불어 주민중심의 맞춤형 지역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즉 제도의 외향적 확산은 분명하나 실질적 자율성, 책임성, 효과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인식 조사의 결과 지방자치 제도의 구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참여기반 확대에 기여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과 주민 간 성과체감 격차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될 수 밖에 없는 자치법률의 제한, 자치사무의 비중도 지난 30년 간 3% 정도 증가에 그쳐 36.7%에 머물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1995년 63.5%에서 48.6%까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서 무너진 지방자치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지방의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지방분권의 확대는 정부·산업·여건·생활권 기반의 균형발전과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지방자치 30년 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30년 동안의 생활상의 변화를 76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 주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제도, 자치역량, 참여구조에서 큰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과 못지 않게 한계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대 간, 계층 간 큰 고리 속에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30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획일적인 제도화에 실시됨으로써 그 긍정적인 성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

전환기에 놓임에 따라 그 이행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인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중심, 지방주도, 현장중시로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를 넘어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이고 획일적 분권을 넘어 생활기반 중심의 실질적이고 맞춤형 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이 지역이 처한 여건에 따라 산업·공간·인구정책을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 권한을 대폭 부여해 줘야 한다.

둘째, 지자체 간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 속에서 폐쇄적인 행정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 간 광역적 내지 초광역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야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은 다양한 협력의 추진이 통합의 선행조건으로 절실히 시급하다.

셋째, 2026년은 열 번째 지방선거와 함께 민선 9기가 새로 출범하는 중대한 시기다. 민선 9기는 지역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맞춤형 지역정책과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의 혁신적 행정 방식과 특화된 산업구조 및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희망찬 새해부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이 지방자치의 완성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손잡고 힘차게 미래로 달려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다.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신가요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뜬금없이 갑자기 들어온 질문이라, 나는 되물었다.

“다니는 절은 있나요?”

“없어요”

“기도는 왜 하려고 하나요?”

“집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요….”

조용히 말끝을 흐리는 그분의 얼굴에서 근심을 읽을 수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생각한 듯하다. 사실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가 특별한 형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직 간절하게 호소하기만 하면 된다. 정말 간절하면, 종교가 있든 없든 자신도 모르게 누군지도 모를 대상을 향해 기도하게 된다.

누구라도 한번쯤은 경험해본 일이긴 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이기에,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성경껏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도하는 법을 내게 물어 본 것이다.

제 더이상 공부할 시간도 없다. 이대로라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바란다. 만약 내가 충분히 공부했거나 아니면 아예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았다면, 시험 당일 날 아침에 그렇게까지 간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심이 큰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또다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하는 법이 궁금한 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직시와 통찰이다. 수험생은 “진인사대전명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솔직히 마음이 힘들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템플스테이 참가자 분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난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일 것이다.

현실에 대한 직시와 통찰의 대부분은 기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고 끈질기게 바라보는 것이다. 수험생은 특정 대학에 집착하는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분은 어쩌면 집착에 가까울지도 모를 가족에 대한 애정을 스스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꾸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기도는 마음의 병을 키운다.

그러나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마음을 치유하고 나아가 처한 현실을 변화시킨다.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기도에 이르는 병을 치사하고 마음을 힐링으로 이끈다.

아름다운 인생은 욕망과 자기성찰로 직조된다. 욕망으로만 점철되는 인생은 결국 고통 속에서 헤맬 뿐이다.

간절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원이 쉬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뜻하기도 한다. 시험 당일날 아침의 등교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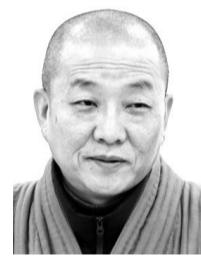
제 더이상 공부할 시간도 없다. 이대로라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바란다. 만약 내가 충분히 공부했거나 아니면 아예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았다면, 시험 당일 날 아침에 그렇게까지 간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심이 큰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또다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하는 법이 궁금한 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직시와 통찰이다. 수험생은 “진인사대전명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솔직히 마음이 힘들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템플스테이 참가자 분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난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일 것이다.

현실에 대한 직시와 통찰의 대부분은 기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고 끈질기게 바라보는 것이다. 수험생은 특정 대학에 집착하는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분은 어쩌면 집착에 가까울지도 모를 가족에 대한 애정을 스스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꾸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사이에서 지혜로운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기도는 마음의 병을 키운다. 그러나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마음을 치유하고 나아가 처한 현실을 변화시킨다.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기도에 이르는 병을 치사하고 마음을 힐링으로 이끈다. 아름다운 인생은 욕망과 자기성찰로 직조된다. 욕망으로만 점철되는 인생은 결국 고통 속에서 헤맬 뿐이다.

종교칼럼

중현
광주 종심사 주지

“기도를 올리면 모르는 문제들도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게 아니군요….”

이번에 수능을 치른 한 수험생이 내게 한 말이다. 얼마나 시험이 간절했으면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다. 하긴, 나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면 종종 나만의 의식을 치르곤 했다. 일곱걸음 걸을 동안 등교길 보도를 럭의 선을 한번도 밟지 않는 것이다. 성공하면 이번 시험은 잘 볼 것이라고 확신하곤 했다. 그러나 번번히 실패해서 낙담한 기억 뿐이다.

이 수험생은 간절하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었다. 그러나 시험 결과가 기대한 만큼 좋지 않았다. 원하는 대학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습은 쉬 집착을 내려 놓지 못해서 힘들어 하고 있었다. 몇 년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단 하루 만에 허사가 되어 버렸으니 상심할 만도 하다. 수능은 끝났고, 소원에 집착하는 마음만 남았다. 실패한 소원성취는 깊은 상심이 되어 그를 힘들게 했다. 나는 그에게 힘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오랜만에 템플스테이 참가자들과 차담을 했다. 한 분이 내게 물었다.

기고

김용백
광주 자동차관리팀장

우리는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깊숙이 스며들며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 흐름에 맞춰 광주시는 AI산업과 관련된 연계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을 맞잡고 최첨단 자율주행 시험장과 자율주행·모빌리티 인증센터를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한 결과 총사업비 452억원(82억원 증액)을 확보하고 AI 자율주행·모빌리티 인증센터 설계비 3억원을 반영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2015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처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의미를 법률로 정의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2019년에는 ‘자율

단과 신교통·안전시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교통 인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의 관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차량, 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성능, 보안, 데이터분석 등)의 시험 인증 및 주행시험 평가를 통한 인증자격을 부여하고 시민과 함께 다양한 교통안전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IT 기반 미래차 모빌리티 융복합 시험단지가 될 것이다.

AI 모빌리티 인증제도는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된 교통체계와 이동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신기술 등을 각종 성능시험과 평가를 통해 인증하는 절차이다. 즉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통신기술 보안인증, 완성차 인증, 부품 기기인증,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분야의 안전성, 성능, 보안, 데이터 분석 등을 시험하고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광주 면허시험장에 조성되는 최첨단 AI 미래 모빌리티 센터는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도로교통시스템의 기술을 접목한 고도의 과학적인 융합기술로 모빌리티 인증시험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신산업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자동차 산업을 견인하고 신산업 육성과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동력원이 될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社說

‘패키징 허브’로 반도체 도시 위상 다지는 광주

정부가 대한민국을 반도체 2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어 기대감을 키운다. 광주에는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라는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 오래 전부터 공장을 가동중이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전략에 따라 첨단 패키징 산업 거점이 되면 광주는 반도체 도시라는 위상을 다지게 된다.

광주는 반도체 후공정인 첨단 패키징 산업 거점을 맡게 된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포장해 기기에 연결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공정으로 여러 개 서로 다른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이는 고부가가치 핵심 기술이다. 정부는 2031년까지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만 3606억 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설비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합작 패키징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데 광주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방에서의 인력난은 GIST와 전남대, 한전공대 등 지역내 대

학을 연계한 ‘반도체 연합공대’로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돼 있어 기대감을 키운다. 광주에는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라는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 오래 전부터 공장을 가동중이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전략에 따라 첨단 패키징 산업 거점이 되면 광주는 반도체 도시라는 위상을 다지게 된다.

광주는 지동차 도시를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의 도시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미래 머거리인 반도체와 AI라는 두 바퀴로 달리는 광주의 미래가 벌써부터 눈앞에 펼쳐진 듯 보인다. 반도체와 AI는 융합하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커진다.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삼은 이제 광주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인요한 의원직 사퇴가 증명한 진영 정치 현실

국회의원 인요한 의원의 전격적인 정계 은퇴 선언은 고질적인 대한민국 진영 논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 의원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년 6개월 간 나름대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는 그제 전격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오직 진영 논리만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려면서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짧지만 현실 정치를 경험하면서 느낀 아쉬움과 무력감이 묻어나는 말이다.

인요한은 순천을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호남과 인연이 깊다.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로 2012년 귀화하면서 본관을 순천 인씨로 할 정도였다. 5·18 때는 시민군 통역관으로 외신기자들을 통해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진보의 심장에서 성장했지만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성향으로

로 보수 진영의 러브콜을 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맡아 내부 혁신을 시도했고 이듬해 국회의원에 당선돼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을 시도했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인요한의 정치 실패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선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2·3 내란을 거치며 진영 정치는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인요한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요한의 정치 실험이 실패로 귀결된 데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그의 말처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진영 정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 양극화 심화로 자기 진영만 보고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다. 지금처럼 여야 지도부부터 극성 지지층만 보는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진영 논리로 인해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할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다.

無等鼓

2024년 12월 3일 밤, 시작은 평온했다. 가깝게 지내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소주 몇 잔을 걸친 저녁식사는 계엄선포 30분 전에 마무리됐다. 이들 의원들은 ‘절묘한 태이팅’에 신속하게 차량을 국회로 돌려 가장 먼저 국회 담장을 넘고 계엄군을 밀쳐내는 ‘영웅적인 순간’의 주인공이 됐다. 결국 이들은 국회 계엄 해제를 통해 잠시 멈춰버린 민주주의의 조침을 돌파했다.

문제는 역사적 현장을 기록해야 할 ‘한民族의 기자’는 잠들어 있다

었다는 것. 광주의 참상을 묵묵히 기록했던 광주 일보는 호외를 통해 민주

시민에게 계엄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고 계엄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편집국 출입문을 봉쇄한 뒤 대통령실 출입기자인 필자를 수소문했다. 흔들어 개우는 후배도 있었지만 필자는 폭탄주를 돌리는 윤석열처럼 고집을 꺼지 않고 계속 잡았다.

본인의